

韓國 既婚女性の 時間制 就業에 관한 연구*

宣 榮 圭(全南大 師範大學 副教授)

(目 次)

- | | |
|--------------------|-----------------|
| I. 序 論 | IV. 模型設定 및 實證分析 |
| II. 時間別 就業의 理論的 檢討 | V. 結 論 |
| III. 時間別 就業의 現況 | |

I. 序 論

오늘날 우리는 人力不足時代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産業構造의 多樣化에 의한 勞動市場의 多變化, 그리고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격차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量的인 면에서는 인력의 수입 및 방위병의 활용이 논의되고 質的으로는 기술교육의 확대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既婚女性人力の 活用은 매우 주요한 戰略의 하나가 되고 있다.

1960年代 이후 勞動市場에 女性의 就業率이 人口增加率이나 全體經濟活動參加率 그리고 男性의 就業率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先進國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에서도 이제 勞動市場이 남성중심에서 여성중심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女性의 就業率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未婚女性의 就業率보다 既婚女性의 就業率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既婚女性들의 時間制 勞動供給이 증가하고 있는 데 基因되고 있다.

이와 같이 90年代初 노동시장의 관심은 既婚女性의 노동과 既婚女性의 취업률 증가이고 그 중에서도 時間別 就業(part-time employee)의 時間制 勞動(part-time work)이다. 아울러 勞動市場에서의 미묘한 革命(The subtle 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

* 이 論文은 1991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 현상은 産業化, 工業化, 都市化라는 사회적 변천(social change)과 지속적인 經濟成長 그리고 所得水準 向上으로 인한 經濟的 變化(economic change)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구조의 다양화, 가정생산의 자동화, 음식문화의 다이어트화, 가사용기구의 내구재화, 교육수준 향상, 출산을 저하, 소비문화의 변화 등 家事勞動形態 變化와 餘暇文化의 變化등이 그 原因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勞動市場에 勞動力을 공급하는 背後地가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의 전통부문에서 도시의 근대부문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既婚女性 中心으로 변화되고 不完全雇傭形態인 既婚女性의 時間別 就業이 漸增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既婚女性의 勞動供給은 시간배분문제로 가사노동시간의 감축으로 인한 餘暇時間의 增大로 인해 증가하게 되고 30세를 전후로 하여 結婚, 妊娠, 育兒 등으로 一時的 退職을 하게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再就業하여 50세 전후 퇴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既婚女性의 勞動은 가사와 취업이라는 兩者擇一의 形態로 출발하였다. 그 후 가사, 취업, 여가 또는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 가사, 그리고 완전노동, 가사노동, 육아의 三者擇一의 觀點에서 研究되었다.

오늘날은 全時間勞動(Full-Time Work)과 時間制勞動(Part-Time Work), 非就業(Non-Market Work)의 새로운 삼자택일의 문제가 중심이 되고 이중에서도 특히 時間制勞動이 매우 중요한 既婚女性의 취업형태가 된 것이다. 『봉급이 적어도 보너스가 후하지 않아도 좋다. 충분한 여가를 가지고 윤택하게 생활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고는 노동시장에서 全時間就業(Full-Time Employee)보다 時間別就業(Part-Time Employee)을 선호하게 된 要因이 되었다.

이러한 選好의 變化는 『자리와 임금』에 연연하였던 취업에서 『자리와 賃金』에 연연하지 않고 『職場이 삶의 중심』이었던 지난날에 비해 『職場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勞動意識의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勞使紛糾과 賃金上昇壓迫은 全時間雇傭보다는 『時間別雇傭』이나 『契約雇傭』으로 대체함으로써 대체효과를 얻으려는 수요측 즉 企業의 視角變化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企業이 諸般 問題를 時間制雇傭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需要側利點과 供給側인 既婚女性도 시간배분의 효율화와 삶의 質的向上이라는 공통의 이점 때문에 그 증가추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0年代에 나타난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시간제 노동자들의 채용이었다. 이는 증가하는 企業費用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업원수를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판매원이나 보험, 서비스업에 既婚女性을 시간제로 고용함으로써 企業利潤에 크게 貢獻하였음을 경험하였다.

이제 企業들은 『全時間雇傭』보다는 『時間制雇傭』을 선호하게 되었고 남성근로자보다는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 중에서도 既婚女性을, 既婚女性 勤勞者도 『全時間雇傭』보다는 『時間制雇傭』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既婚女性의 『時間制雇傭』은 지금의 노동시장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닐 수 없다. 美國이나 日本의 既婚女性 就業率이 50~60%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89년말 현재 30%로 아직은 그 절반수준이지만 30%내에서 50%인 15% 정도가 『時間別 雇傭者』임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本 研究은 우리나라 既婚女性의 時間制就業은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선진국과 비교해 어떤 요인이 같고 어떤 요인이 다른가를 밝혀보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아울러 既婚女性의 年齡은 30~54세로 非農家 既婚女性으로 한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本 研究은 第Ⅰ章 序論에 이어 第Ⅱ章에서는 既婚女性의 노동공급에 관한 理論的 背景과 時間別勞動의 이론을 검토하고 第Ⅲ章에서는 OECD諸國 및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既婚女性의 就業과 時間制就業의 추세와 현황을 살펴본다. 第Ⅳ章에서는 模型設定 및 實證分析으로 모형설정, 변수정의, 실증분석을 行하고 第Ⅴ章은 結論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앞으로 既婚女性 勤勞者를 위한 몇가지 政策的 示唆點을 提示하였다.

Ⅱ. 時間別就業의 理論的 檢討

經濟發展에 따른 產業構造의 변화는 勞動市場의 構造를 변화시켰다. 즉 노동시장이 女性化, 高學歷化, 高齡化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도에 들어와서는 첫째, 무제한적 노동공급형태에서 제한적 노동공급형태로 둘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人力不足의 時代를 맞이하게 되었고, 셋째, 양적 및 질적으로 여성의 노동공급 및 수요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制度的 要因과 市場의 要因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既婚女性의 거시적 및 현대적 요인과 미시적 및 가정적 요인의 변화는 既婚女性의 就業을 크게 增加시켰다.

既婚女性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는 취업률을 증가시키고 就業率의 增加는 재취업 때문이며 再就業은 時間制就業의¹⁾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既婚女性就業에 관한 理論的 背景은 첫째, 資本主義와 既婚女性勞動 둘째, 獨占資本主義와 既婚女性勞動 셋째, 新古典學派의 既婚女性勞動 넷째, 시카고學派와 既婚女性勞動 다섯째, 펜실바니아學派의 既婚女性勞動問題²⁾ 여섯째, 既婚女性勞動과 時間制勞動³⁾ 및 全時間

勞動 順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資本主義와 既婚女性勞動은 產業構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힘이 불필요하게 되어 『섬세하고 안정된 노동』 즉 여성 노동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既婚女性의 家事勞動이 점차 공적 산업으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女性勞動者가 勞動市場에 진입하게 된 것은 남성과 똑같은 家計에 여성을 배치하는 경우 賃金隔差에 의해 자본가는 人件費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여성 특유의 섬세한 손의 기능은 資本家에게 이익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作業의 기능화, 자동화는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고 남성노동을 既婚女性이 똑같이 훌륭하게 男性賃金의 반이나 1/3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既婚女性은 家族을 부양하고 育兒등 안정성과 책임감이 강해 미혼여성보다 훨씬 주의력이 높고 순종성이 높으며 자기가 필요한 收入을 벌기 위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특성을 가진 勞動이다. 또한 道德的 價値觀과 은유한 性品도 특성의 하나이다.

男便이 失業狀況에 있는 경우나 남편이 저임금직종에 근무할 경우 既婚女性의 취업이 촉진되고 이때 자본가는 收益의 增大를 위해 既婚女性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⁴⁾

2. 獨占資本主義에서의 既婚女性勞動은 기업의 자기자본율의 개선과 수익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人件費의 節約이 우선케 된다. 따라서 公用側面에서는 勞動者 配置의 合理化가 필요하고 賃金側面에서는 직무급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양면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既婚女性을 어떻게 배치하고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既婚女性勞動 配置의 合理化는 既婚女性 勤勞者에게 기술혁신을 통한 고도자본축적과정에 있고 자본축적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하고 產業規模의 擴大 및 產業構造變化는 젊은층 근로자에게 의존했던 전통적인 기반을 붕괴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1)전형적으로 生産部門에서 중졸 정도의 젊은층 여성노동력 공급원이 상대적으로 축소하였고, 2)資本의 효율적인 면에서 『時間制雇傭』의 活用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3)教育水準이 상대적으로 높고 4)직업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점 5)既婚女性은 勞動組合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새로운 勞動力으로 認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資本은 효율성이 큰 유효한 노동력으로 既婚女性을 이용할 수 있고 아울러 젊은층 여성노동구인란을 해소키 위해 既婚女性의 『時間制雇傭』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既婚女性의 立場에서는 주된 노동이 가사였으나 『時間制就業』으로 부가적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가내의 보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勞動市場에서 既婚女性의 就業形態가 결혼하면 퇴직해야 하는 전통적인 형태에서 결혼해도 퇴직하지 않는 형태로, 妊娠과 出産으로 인한 퇴직도 퇴직하지 않는 형태와 結婚과

妊娠등으로 인한 퇴직이 영구적 퇴직이 아닌 일시적 퇴직으로 자녀양육 후 再就業을 하게 되고 재취업 형태는 「時間制就業」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 新古典學派에서 既婚女性の 勞動供給形態를 살펴보면 가격이론과 임금결정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限界生産物の 價値가 곧 賃金이라는 賃金隔差說이다. 따라서 既婚女性の 노동공급을 설명하는 데는 케인즈이론이 일반이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貨幣賃金率의 하방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은 남성노동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個人的 勞動供給이 市場賃金(Market wage)과 留保賃金(Reservation Wage)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면 비록 제도적 요인에 의해 시장임금률이 下方硬直的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유보임금률이나 구직활동의 비용과 수익이 변함에 따라 勞動供給도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求職理論에서도 구직활동은 재직중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만 경기가 호황이나 불황일 때에도 잠재적 구직자로서 노동시장에 등장하는 既婚女性을 고려하게 되면 職場에 취업한 채로 전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반대로 적어진다. 이처럼 勞動市長에서 既婚女性을 고려하게 되면 「求職理論」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既婚女性이 就業해도 좋다는 經濟的 要因 즉, 취업해도 좋다는 유보임금의 수준이 일반적 賃金上昇에서 상대적 저하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은 유보 임금수준보다는 심리적 소득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4. 시카고學派의 既婚女性勞動供給의 異論은 1960년대의 베커(G.B. Becker, 1960, 1964, 1965)와 1970년대의 슐츠(T. Schltz, 1974)의 理論을 기초로 하고 있다.

베커는 出産力 決定要因으로서 자녀에 대한 수요를 생산자나 소비자의 내구재 수요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父母들은 자녀들로부터 수익을 기대하거나 직접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용은 부모들이 자녀의 수의 증가 즉 양적인 면과 教育水準의 增加등 질적인 면에서 효용을 얻게 된다는 것이 베커의 이론이었고 이는 가족내에서 자녀가 열등재로 취급될 경우 家族所得과 負의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가된 가족소득내에서 자녀에 대한 總支出의 增加는 소득증가가 소비자로서 하여금 經濟的 量보다는 質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자녀 수의 증가보다는 한 자녀당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既婚女性の 勞動供給은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의 소비이론과 노동공급의 정태이론 그리고 가계생산과 시간배분이론 등을 도입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슐츠는 既婚女性 勞動을 家事勞動과 市場勞動으로 나누고 시간배분에 性的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적 자본투자의 양적·질적 모형을 종합화한 出産力形態의 模型을

가지고 시간비용가설과 질량상호작용가설, 결혼이론 등을 제시하였다.(R.J. Willis 1974, 1982, 1987)

먼저 時間費用假說은 자녀양육의 육아와 비관련 가계생산활동에서 既婚女性의 시간 이용을 가정한 것이다.

既婚女性이 勞動市長에 참가하지 않을 때 시간의 잠재적 가치와 자녀의 한계비용은 남편소득의 增加函數이고 시장노동에 참가하고 있을 때는 시간의 비용이 既婚女性의 限界賃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어린 자녀의 유무와 既婚女性의 勞動供給 간에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質量 相互作用假說은 가계의 예산제약하에서 既婚女性의 시간비용과 자녀수와 질이 가계의 선택으로 한계비용과 내생적 변동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結婚理論은 결혼으로부터의 이득은 家計生産에서 노동의 역할분담 때문에 발생하므로 결혼자본의 결합생산과 결혼상대자와의 이타적인 상호효용작용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카고學派에서는 또 신가정경제학을 중심으로 출산의 경제학을 발전시켰다.

既婚女性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妊娠과 出産을 연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5. 펜실바니아學派에서는 家計의 經濟行爲에 상대소득가설을 도입하고 있다. 既婚女性의 경제활동 증가는 임금효과를 크게 하고 강력한 반출산조기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既婚女性의 就業과 출산력, 자녀의 량과 질, 소득과 소비의 효율성과 효용측면에서 家計生産模型의 변형과 교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6. 히구찌(樋口美雄)의 見解를 보면 히구찌는 所得水準과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加要因分析에서 횡단면분석과 시계열분석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既婚女性 勞動者의 勞動時間은 기업에서 지정되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所得과 餘暇에 대한 選好函數로 보고 全時間勞動과 時間制勞動, 非就業의 三者擇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本 研究에서 『時間制就業』과 『全時間就業』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사회적인 면이나 현실적인 양면에서의 요청이다. 既婚女性의 노동시장진출 과정에서 특히 『時間制就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각국에서 공통적 현상으로 보고되어 있어 이러한 선호행동의 요인을 밝히는 것이 既婚女性 노동의 내용을 이해함과 동시에 勞動市場 전체의 未來像을 理解하고 豫測하는 데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급선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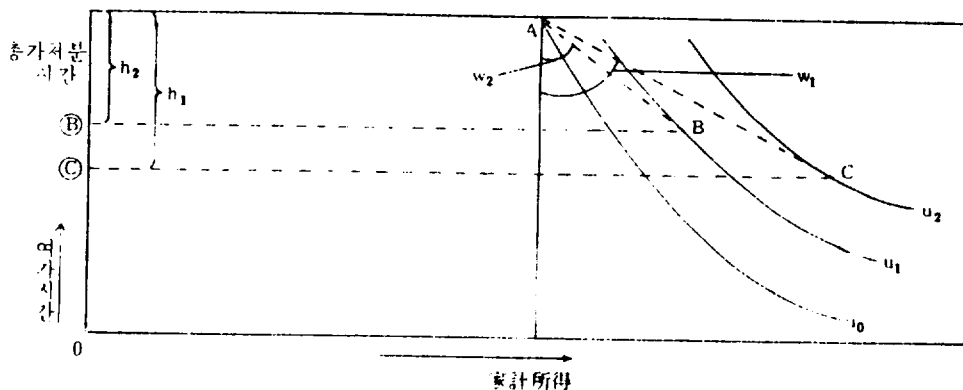
둘째, 分析面에서 『時間制雇傭』과 『全時間雇傭』이라는 노동시간과 임금이 상이한 고용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가계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각 가계의 고용기회와 선택의 이론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既婚女性の 勞動時間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지정한 것이며 고용자의 의사에 의해 이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家計의 既婚女性은 지정노동시간과 이에 대응해서 기업에서 나타난 賃金率의 2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고용조건을 수락하며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취업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을 것인가의 兩者擇一의 선택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雇傭機會가 지정노동시간이 다른 『時間制』와 『全時間』으로 양분되었기 때문에 고용조건도 상이한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家計는 스스로 所得과 餘暇의 선호에 기반을 두고 非就業도 포함된 삼자택일에 직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림 1) 家計의 無差別 曲線과 雇傭機會選擇



資料：桶口美雄, 既婚女子의 勞動供給行動, 三田商學研究, 25卷 4號, 1982.

그림1 에서 全時間就業(full-time)일 때의 시간당 임금이 W_1 이라면 이것이 개별가계의 무차별곡선과 만나는 C점에서 노동시간 h_1 이 결정된다. 그리고 時間制就業(part-time)일 때도 똑같은 논리로 B점에서 노동시간 h_2 가 결정된다. 물론 A는 비취업으로 전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점이 된다.(U_0 로 접하는 점)

그림에 나타난 無差別曲線은 效用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 현상은 일례에 불과하고 가

계마다 다를 수 있으며 U_1 과 U_2 가 변하지 않는다 해도 가계마다 그 선호도에 따라 h_1 과 h_2 는 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無差別曲線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히구찌는 다음과 같은 2次函數로 定義하고 있다.

$$U = 1/2r_1y_2 + r_2y + r_3A + \sqrt{4A + 1/2}\sqrt{5A^2} \dots\dots\dots (1)$$

y : 실질가계소득

A : 既婚女性の 여가시간

r_1, r_2, r_3, r_5 : 매개변수(parameter)

$\sqrt{4}$: 가계별 여가에 대한 선호도

(상수 : 평균 $\sqrt{4}$, 분산 62의 정규분포 가정)

式 (1)에서 그림에 나타난 가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U_1 = 1/2r_1(I + h_1w_1)^2 + r_2(I + h_1w_1) + r_3(I + h_1w_1)(T - h_1) + \sqrt{4}(T - h_1) + 1/2r_5(T - h_1)^2 \dots\dots\dots (2)$$

$$U_2 = 1/2r_1(I + h_2w_2)^2 + r_2(I + h_2w_2) + r_3(I + h_2w_2)(T - h_2) + \sqrt{4}(T - h_2) + 1/2r_5(T - h_2)^2 \dots\dots\dots (3)$$

$$U_0 = 1/2r_1I^2 + r_2I + r_3IT + \sqrt{4}T + 1/2r_5T_0^2 \dots\dots\dots (4)$$

만약에 앞에서 가정한 대로 이 가계의 既婚女性が 전시간 고용조건을 선택한다면 $U_1 > U_2$ 그리고 $U_1 > U_0$ 가 성립되어야 하고 $\sqrt{4}$ 에 대해 필요한 다음 式을 만족시키는 $\sqrt{4}$ 를 갖고 있을 것이다.

$$\sqrt{4} \leq \{1(m - n) + (i - j)\} / (h_1 - h_2) \dots\dots\dots (5)$$

$$\sqrt{4} \leq (Im + i) / h_1 \dots\dots\dots (6)$$

단, $m \equiv h_1(r_1w_1 - r_3)$

$n \equiv h_2(r_1w_1 - r_3)$

$i \equiv 1/2r_1h_1^2w_1^2 + r_2h_1w_1 + r_3h_1w_1(T - h_1) - r_5h_1(T - 1/2h_1)$

$j \equiv 1/2r_1h_2^2w_2^2 + r_2h_2w_2 + r_3h_2w_2(T - h_2) - r_5h_2(T - 1/2h_2)$

또한 時間制 雇傭條件을 선택하는 家計라면 당연히 $U_2 > U_1$, 그리고 $U_2 > U_0$ 이어야 한다. 이를 $\sqrt{4}$ 에 정리한 式으로 나타내면

$$\sqrt{4} \geq \{1(m - n) + (i - j)\} / (h_1 - h_2) \dots\dots\dots (7)$$

$$\sqrt{4} \leq (Im+j)/h_2 \dots\dots\dots (8)$$

이 된다.

여기서 (5)=(7), (6)=(8)의 우변을 각각 A, B, C라 하고 그 크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A-B = \{(Im+i)h_2 - (In+j)h_1\} / h_1(h_1-h_2) \dots\dots\dots (9)$$

$$B-C = \{(In-i)h^2 - (In+j)h_1\} / h_1/h_2 \dots\dots\dots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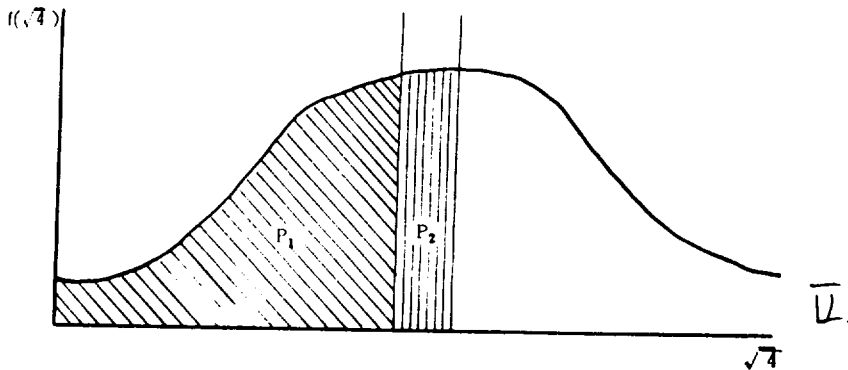
최초의 가정에서 h_1 이 h_2 보다 길기 때문에 (9), (10)은 正의 값을 취하고 부호가 같다. 따라서 A, B, C의 대소관계는 $A \geq B \geq C$ 이거나 $A \leq B \leq C$ 이다. 그리고 $A \geq B \geq C$ 인 경우에는 (7), (9)식이 성립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A \leq B \leq C$ 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5)와 (6)은 (5)로 통합시켜 $\sqrt{4} \leq A$ 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비슷하게 나머지 각 條件들도 時間制를 선택하는 경우 $A \leq \sqrt{4} \leq C$, 非就業의 경우는 $\sqrt{4} \geq C$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상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全時間(full-time) 선택을 (P_1), 時間制(part-time) 선택을 (P_2), ②非就業 선택을 (P_0) 어떻게 결정하는지 히구찌 모형으로 살펴보자.

그림2는 $\sqrt{4}$ 의 正規分布 [$N(r_4, \sigma^2)$]을 나타낸다.

여기서 P_0, P_1, P_2 는 상술한 조건을 만족하는 各家計의 比率이므로 $\sqrt{4}$ 의 確率密度函數를 $f(\sqrt{4})$ 라 하면

(그림 2) $\sqrt{4}$ 의 分布와 就業率



$$P_1 = \int_{-\infty}^{\mu} f(\sqrt{4}) d\sqrt{4} \dots\dots\dots (11)$$

$$P_2 = \int_{\mu}^{\infty} f(\sqrt{4}) d\sqrt{4} \dots\dots\dots (12)$$

$$P_0 = \int_{-\infty}^{\infty} f(\sqrt{4}) d\sqrt{4} \dots\dots\dots (13) \text{가 된다. 단, } P_1 + P_2 + P_0 = 1$$

이 模型의 實證分析은 더 복잡한 추정과정을 거쳐서 행해지나 생략하기로 하며 결국 이 모형은 소득과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加行動에 관한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종래의 가사노동, 시장노동 여가의 삼자택일문제를 소득(임금수준까지를 포함한) 변수에 중점을 두고 시장노동을 전시간노동과 시간제노동으로 나누고 가사와 餘暇를 非就業으로 하여 새로운 삼자택일문제로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既婚女性의 時間配分에 있어 가사노동시간의 감축으로 賃金勞動이 증가하고 임금노동 중에서도 全時間勞動이 증가할 뿐만아니라 時間制勞動의 增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既婚女性의 時間制就業은 巨觀的으로는 1)인적자본의 측면에서 2)여성인력문제로 3)가계노동공급문제로 4)여성노동공급문제 5)既婚女性 노동공급문제 6)既婚女性의 취업문제 7)既婚女性의 재취업문제 8)既婚女性의 時間制就業의 단계로 검토되어야 한다.

微觀的으로는 女性의 全生涯(Life-cycle)의 노동공급이 M자형으로 취업과 퇴직 그리고 재취업으로 이루어지고 결혼과 육아로 인한 일정기간 퇴직후 재취업을 하게 될 때 全時間就業보다는 時間制就業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고 취업의 기회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구직기간이나 구직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따라서 時間制就業率は 높아지게 된 것이다.⁷⁾

Ⅲ. 時間制 就業의 現況

時間制就業의 現況은 1.OECD제국, 2.미국, 3.일본, 4.한국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OECD諸國

OECD諸國에서 既婚女性의 시간제취업화는 1986년말 현재 아일랜드의 61.6%가 가장 낮고 이탈리아가 89.8%로 가장 높다. 따라서 여성취업자의 60-90%가 時間制就業者임을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10-20%정도가 時間制就業者이고 남성의 時間制就業은 10%이내인 반면 여성의 時間制就業은 20-50%정도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미국, 영국 그리고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1973~1986년의 기간 동안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타 국가는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동양권인 일본은 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表 1) 參照

(表 1) 時間制 就業의 構造와 比率, 時間制 勞動比率

(單位: %)

區分 國 家	全 體		男 性		女 性		時間制 就業比率	
	1973	1986	1973	1986	1973	1986	1973	1986
오스트레일리아	11.4	17.2	3.4	6.7	27.3	37.9	79.6	78.7
벨 지 음	2.8	8.1	0.4	1.9	8.2	21.1	89.8	86.1
카 나 다	10.6	15.4	5.1	7.8	20.3	25.9	69.5	71.2
덴 마 크	17.0	23.7	1.9	8.4	40.3	43.9	93.4	80.9
핀 란 드	3.9	8.3	1.4	4.9	6.7	11.5	81.0	68.7
프 랑 스	5.1	9.7	1.4	3.5	11.2	23.1	82.1	83.0
이 탈 리 아	7.7	12.6	1.0	2.1	20.2	28.4	92.4	89.8
독 일	4.0	6.7	1.8	2.4	10.1	15.5	67.5	74.3
아 일 랜 드	3.9	4.6	2.3	3.0	8.5	10.1	55.4	61.6
일본	7.9	10.5	4.8	5.5	17.3	22.8	60.9	70.0
룩셈부르크	4.5	6.7	1.0	2.1	13.9	16.3	83.3	76.6
네덜란드	4.4	22.0	1.1	8.7	15.5	54.2	80.4	76.1
뉴질랜드	10.8	16.4	4.7	6.6	22.0	31.2	71.3	79.0
노르웨이	23.5	30.0	8.7	13.3	47.0	51.3	77.0	79.2
스웨덴	18.0	24.8	3.7	6.0	38.0	42.8	88.0	86.6
영국	15.3	19.1	1.8	4.2	38.3	44.9	92.1	88.5
미국	13.9	18.4	7.2	10.2	24.8	26.4	68.4	66.5

資料: OECD, Employment out look, 1983, tab.18, 1987, tab.1.3.

(表 2) 先進國의 女性經濟活動 參加率

(單位: %)

	全體女性			既婚女性			60-80年平均 增加率	
	1960	1970	1980	1960	1970	1980	全體女性	既婚女性
오스트레일리아	29.5	42.8	55.4	19.2	36.5	50.8	3.20	4.86
영국	43.4	54.6	62.3	33.7	48.8	57.2	1.82	2.64
프랑스	44.5	47.0	57.0	35.6	41.5	52.6	1.25	2.02
독일	46.5	50.9	56.2	36.5	42.7	54.4	0.95	2.81
이스라엘	29.0	32.0	39.2	25.7	36.0	43.5	1.60	2.81
이탈리아	35.2	33.8	39.9	18.5	24.2	35.4	0.63	3.24
일본	47.7	50.0	52.7	36.0	39.5	41.9	0.67	1.02
네덜란드	49.0	43.9	34.9	7.6	17.3	30.6	-1.68	7.21
스웨덴	51.0	60.1	76.9	43.1	56.2	75.6	2.45	3.36
미국	37.8	43.4	51.3	30.5	40.8	50.1	1.54	2.51
한국	30.2	30.7	30.7	16.6	16.1	22.4	1.14	1.51

資料: S.P. Smith and M.P. Ward "Times-Series Growth in Labor For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85, Vol.3, No.1, Part2, pp.s61-s124.

전체적으로 선진제국 여성의 經濟活動參加率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加率은 전체 여성의 經濟活動參加率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에서 1980년까지 20년 동안의 年평균증가율을 보아도 전체여성보다 既婚女性の 增加率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表 2) 參照

2. 美國의 現況

美國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加率(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은 1900년에는 5.6%, 1940년에는 13.8%, 1950년에는 21.6%, 1960년에는 30.6%, 1970년에는 39.5%, 1980년에는 50.2%에 이르고 있다. 즉 既婚女性 2명 중 1명은 經濟活動參加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의 경우 전체여성의 51.7%, 독신여성의 61.2%, 既婚女性の 50.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여성의 時間制就業은 1973년 24.8%에서 1986년 26.4% 년 평균 4%의 증가를 보였으나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은 동기간 동안 99% 감소하였다. 즉 1973년 68.4%에서 1986년 66.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다른나라의 경우에 비해 全時間就業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表 3) 參照

(表 3)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of Females over Years of Age,
By Marital Status, 1900-1980(Percent)

	All Females	Single	Widowed Divorced	Married
1900	20.6(100)	45.9(100)	32.5(100)	5.6(100)
1910	25.5(124)	54.0(118)	34.1(105)	10.7(191)
1920	24.0(117)			9.0(161)
1930	25.3(123)	55.2(120)	34.4(106)	11.7(209)
1940	26.7(130)	53.1(116)	33.7(104)	13.8(246)
1950	29.7(144)	53.6(117)	35.5(109)	21.6(386)
1960	35.7(173)	42.9(94)	38.7(119)	30.6(546)
1970	41.6(202)	50.9(111)	39.5(122)	39.5(705)
1980	51.7(250)	61.2(133)	44.1(136)	50.2(896)

Note : index numbers with 1900=100, are shown in parentheses.

Sources : 1900-1950 : Clarence D.Long, The Labor Force Under Changing Income and Employment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8, Table A-6.

1960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Census of Population 1960 Employment Status(Subject Reports PC(2)-6A, Table 4.

1970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Census of Population, 1970 Employment Status and Work Experience Subject Reports PC(2)-6A, Table 3.

1980 : U.S. President, Employment and Training Report of the Present 1980(Washington.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Tables A2,B1.(The data for 1980 are not strictly comparable because they are derived from a monthly survey, not the decennial census).

3. 日本의 現況

1965년 이후 전체여성의 經濟活動參加率은 1965년 47.7%, 1970년 50.0%, 1980년 52.7%였고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加率은 1965년 36.0%, 1970년 39.5%, 1980년 41.9%, 1989년 55%가 취업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20대가 27%, 30대가 49%, 40대가 40%, 50대가 68%로 일본의 경우 既婚女性の 年齡이 높을수록 오히려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체여성의 年평균증가율이 0.7%인 데 비해 既婚女性은 1.0%로 그 증가율이 既婚女性이 높음을 알 수 있다.

時間制就業率도 전체적으로 1973년 7.9%를 점했던 것이 1986년 10.5%였다. 남성의 시간제 근무는 동기간 동안 4.8%에서 5.5%로 증가하였고 전체 여성은 17.8%에서 22.8%로 증가하였다.

既婚女性은 68.9%에서 70.0%로 차지하는 비중이나 증가율이 다른 부분의 증가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4) 參照

(表 4) 日本의 女性 經濟活動 參加率

(單位 : %)

區 分	1965	1970	1980	65-80 年平均 增加率
既婚女性	36.0	39.5	41.9	1.0
全體女性	47.7	50.0	52.7	0.7

資料 : H.Shimada, Y.Higuchi, An Analysis of Trends i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Japan, *Journal of Economics*, 1985, Vol.3, No.1.Part 2, pp.s355-s374.

日本의 경우 노동인구의 12%인 5백30만명이 시간제근무로 집계되고 있으며 노동인구는 년 1% 증가하는 데 반해 시간제 근무자는 5%씩 증가하고 있다.

미시비시 연구소는 時間制就業者들이 총노동인구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企業의 다변화와 産業의 재편으로 時間制就業者들에 대한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은 「終身雇者」와 「時間制雇者」로 이원화되어 있다. 「時間制就業者」들은 첫째,

노조에 관심이 없고 둘째, 노조결성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시간제노동자의 채용은 낮은 임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時間制就業者의 賃金水準은 전시간(정규)취업자의 50%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절감이 일본 기업들의 登高와 保護貿易 장벽에도 지속적인 누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젊은층 및 既婚女性의 時間制근무 선호와 企業의 時間制勤務 선호가 상호작용하며 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企業의 販賣戰略도 기업을 상대로 했던 것이 가계상대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힘(筋)의 일』에서 『섬세함의 일』로 전환하고 있어 既婚女性의 時間制就業은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既婚女性들의 취업은 충실감, 생활비, 풍요한 생활의 順이었다.

既婚女性들이 취업하는 이유로는 『충실감을 얻기 위해서』가 36%로 가장 많아 정신적인 만족에 큰 비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가 일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세번째가 『가정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네번째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갖고 싶어서』 순으로 『정신적 소득』과 『경제적 소득』 그리고 『레저비용』의 마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본 既婚女性들의 취업내용을 보면 사무직이 33%, 경작업적이 29%, 전문적이 20% 순이고 既婚女性 所得의 支出은 『생산비』가 1위, 『저축』이 2위, 『자신이 필요한 곳에』가 3위를 차지하였다.

4. 韓國의 現況

60년대초에서 80년대초까지의 既婚女性의 經濟活動關係指標을 보면 어느 지표보다도 비농가 既婚女性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가 지난 2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 非農家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도 1963년 16.6%, 1983년 22.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從業員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全體女性就業者 3백50만명의 30%인 1백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취업자 천만명 중 10%에 해당한다. 취업자는 전체의 5%, 既婚女性은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1979년 11.1%였던 既婚女性의 就業比率이 1985년 20%, 1988년 28%, 1989년에는 30%를 넘어서고 있어 지난 11년 동안에 年평균 증가 2%의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 5) 參照

既婚女性勤勞者比率을 보면 총여성취업자는 1980-1988년까지 3%의 年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未婚과 既婚으로 나누어보면 미혼이 1980년 28%에서 1988년 24.4%로 年평균

(表 5) 既婚女性 就業比率

(單位：%)

年 度	全體女性就業者中 既婚女性 比率
1979	11.1
1985	20.0
1988	28.0
1989	30.0

資料：經濟企劃院，經濟活動人口調查，各年度.

-2% 포인트의 감소를 보이는 반면 既婚女性은 1980년 72%에서 1988년 75.6%로 년평균 2.0%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0.6% 포인트가 증가하는 등 既婚女性의 就業이 增加함을 나타내고 있다. (表 6) 參照

(表 6) 既婚女性 勞動者 比率

(單位：千名，%)

	女性 就業者數	未 婚	既 婚	既 婚		
				有配偶	死 別	離 婚
1980	5,217	28.0	72.0	59.0	11.6	1.4
1981	5,345	26.4	73.6	60.5	11.8	1.4
1982	5,622	25.5	74.5	61.1	12.1	1.4
1983	5,686	25.6	74.4	61.2	11.8	1.4
1984	5,535	25.6	74.4	61.1	11.7	1.5
1985	5,834	25.2	74.8	61.7	11.6	1.5
1986	6,165	25.3	74.7	61.5	11.6	1.6
1987	6,613	24.7	75.3	62.2	11.5	1.6
1988	6,771	24.4	75.6	62.7	11.3	1.7
年平均 增加率	3.3	-1.7	2.0	0.6	-0.4	2.0

資料：經濟企劃院，韓國의 社會指標，1989.

職種別로 既婚女性의 就業者 및 比率을 보면 농림수산업에는 98.8%를 점하고 있고 판매종사자나 서비스직에는 86.8%, 84.9%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기술직에는 47.9%로 50% 정도를 점하고 있음을 볼 때 職種別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생산 운수장비에도 既婚女性이 74.1%로 未婚女性보다 거의 3배 정도 더 많이 취업하고 있다.

고용주 및 자영자도 既婚女性이 훨씬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고 일일고용에서도 12.6%로 未婚女性보다 4배 정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表 7)은 1989년의 比率을 본 것이지만 1979년의 통계치와 비교해볼 때 全職種에 걸쳐 既婚女性의 就業率이 漸增하고 있다. (表 7) 參照

(表 7) 職種別 既婚女性 就業者 比率

(單位：千名, %)

區 分	女性就業者數	未婚	既婚	有配偶	死別	離婚
전문·기술·행정·관리직	422	52.1	47.9	41.7	5.1	1.2
사무관련직	763	83.0	17.0	16.2	0.4	0.3
판매종사자	1,143	12.2	86.8	74.2	11.2	1.4
서비스직	1,101	15.1	84.9	63.9	15.3	5.6
농·림·수산업	1,548	1.2	98.8	80.6	17.9	0.3
생산·운수장비·운전사 ·단순노무직	1,793	25.9	74.1	63.7	9.1	1.3
고 용 주	171	1.0	3.0	2.7	3.1	12.5
자 영 자	1,284	3.1	24.1	20.5	43.8	27.7
가족종사자	1,849	3.3	35.1	40.2	11.1	2.7
상 시 고	2,767	89.2	25.2	24.8	24.8	44.6
일 고	700	3.4	12.6	11.8	17.2	12.5

資料：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查”, 1989.

다음으로 既婚女性の 就業動機를 보면 비록 80년도의 비교자료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就業動機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동기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가 65.1%, 자녀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가 50.7%,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가 29.3%, 그리고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16.1% 順이었다. 다음으로 日本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50.6%, 자녀학비를 대기 위해서 29.6%, 집안살림에 얽매이기 싫어서 27.6%, 집안일 돕기가 21.6% 順으로 우리나라와 같은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비율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美國의 경우도 생활비 보충을 위해서가 63.3%로 3國 공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자녀학비충당, 3위가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 4위는 자신의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우리는 就業動機부터가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表 8) 參照

이제 우리나라의 女性就業者의 就業理由를 혼인상태별로 보면 有配偶인 既婚女性은 가계보탬이 가장 큰 사유였고, 자기집 일 그리고 생계유지 순이었다. 그러나 未婚인 경우 적성활용, 사회경험 그리고 가계보탬의 순으로 그 사유가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離婚이나 死別의 여성은 생계유지가 81.0%, 65.9%로 대부분 生計維持를 위한 就業임을 살펴볼 수 있다. (表 9) 參照

이제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은 결혼과 자녀 그리고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1984년과 5년 후인 1988년의 취업에 관한 態度를 비교해보자. (1)의 경우 1988년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2)의 경우는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의 경우는 거의 2.5배 정도 증가하여 자녀성장후와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4)의 경우도 점

(表 8) 既婚女性の 就業動機(1980年)

(單位：%)

區 分	韓國	日本	美國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65.1	50.6	63.3
자녀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50.7	29.6	28.0
집안살림에만 얽매이기 싫어서	2.9	27.0	15.7
집안식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29.3	21.5	4.5
새 집마련, 집수리, 살림장만을 위해서	11.1	16.9	21.5
취미생활에 드는 비용,잡비를 벌기 위해서	2.1	16.4	13.9
노후대책을 위해	16.1	15.3	10.3
자신의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	8.5	13.1	22.3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	0.6	9.9	27.6
남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여 살기 싫어서	2.6	2.2	9.3
기 타	0.9	2.6	14.6

資料：한국개발연구소, “한국의 어머니”, 1980, p.80.

(表 9) 女性就業者의 就業事由(1988)

(單位：%)

구 分		계	생계 유지	가계 보탬	자기 집일	적성 활용	사회 경험	시간 활용	사회 기여	기 타
혼인	미 혼	100.0	13.8	24.6	4.0	31.3	22.8	1.8	1.5	0.3
상	유배우	100.0	14.2	41.3	35.5	5.5	0.5	2.6	0.2	0.1
태	사 별	100.0	65.9	15.5	12.5	2.3	0.4	3.0	0.1	0.2
별	이 혼	100.0	81.0	8.4	1.1	6.1	1.1	1.1	0.6	0.6

資料：經濟企劃院, “社會統計調査”, 1989.

(表 10) 女性就業에 관한 態度

(單位：%)

		계	(1)가정에만 전념	(2)결혼전까지 취업	(3)자녀성장 후 취업	(4)결혼전과 자녀성장후 취업	(5)가정과 관계없이 취업
1984	전국	100.	27.8	21.6	8.9	18.2	23.5
	시부	100.	25.6	19.9	8.9	20.5	25.1
	여	100.	23.6	20.0	9.4	20.2	26.8
1988	전국	100.	21.2	26.3	21.0	20.7	10.8
	시부	100.	19.5	25.1	21.7	22.8	11.0
	여	100.	17.5	24.1	22.5	22.9	13.0

資料：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9.

증하고 있고 (5)의 경우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우리나라의 既婚女性들이 家庭을 중시하면서 결혼전까지 그리고 자녀 성장후 결혼전과 자녀성장후(취업-퇴직-재취업형태) 취업이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既婚女性의 就業이 증가하고 따라서 既婚女性의

時間制就業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表 10) 參照

IV. 模型設定 및 實證分析

90年代에는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加가 70-80년대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既婚女性の 취업과 재취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의 증가로 보고 있다.

第4章에서는 지금까지의 論議를 기초로 하여 79년에서 88년까지 10년간 기혼여성의 時間制就業 要因이 무엇인가를 규명키 위해 한국경제상황에 맞는 合理的 模型을 設定하고 이를 實證分析해보기로 한다.

먼저 모형설정에 있어서는 既存 先行研究의 模型을 참조하여⁸⁾ 설정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L_n WPT = a + \alpha_1 L_n UR + \alpha_2 L_n EW + \alpha_3 L_n WW + \alpha_4 L_n MW + \alpha_5 L_n TR + \alpha_6 L_n EY + \alpha_7 L_n EH + \alpha_8 L_n MU + \alpha_9 L_n HS + \alpha_{10} L_n FR \dots\dots\dots (1)$$

$$L_n WPT = a + \alpha_1 L_n MW + \alpha_2 L_n EH + \alpha_3 L_n MU + \alpha_4 L_n FR \dots\dots\dots (2)$$

위의 식 (1)은 전체변수를 대상으로 한 가정모형이고 이를 순차회귀분석하여 T값이 유의한 변수를 추출 확정한 모형이 식 (2)이다.

本稿에서 사용한 資料는 1979년부터 1988년까지 10년간의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만 분기별 통계자료가 없는 변수는 4분기 동일치로 사용하였다.

各 變數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WPT :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者로 18시간 미만 취업자.
2. UR : 여성실업률.
3. EW : 30-54세 여성취업률.
4. WW : 여성임금수준.
5. MW : 남성임금수준.
6. TR : 3차산업 여성취업자.

- 7. EY : 여성의 교육수준 증줄 이하.
- 8. EH : 여성의 교육수준 고졸 이상.
- 9. MU : 남성실업률.
- 10.HS : 주택공급률.
- 11.FR : 출산율.

위의 模型과 變數를 이용하여 1단계로 하나의 각 변수로 종속변수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변수가 유의하였다.

(表 11) 實證分析 結果

NO	LABEL	VAR	LAG	COEFFICIENT	T-STATISTIC
1	CONSTANT	0	0	420.8553	1.327745
2	I2	4	0	.5439676E-03	3.439218
3	I5	7	0	.5007141	14.99585
4	I6	8	0	.5460303	17.80017
5	I8	10	0	-8.530183	-2.255246

단계적으로 각 변수들을 입력하여 T값이 비교적 좋은 것만을 사용 분석한 것이 (表 11)이다. 물론 각 변수관계에서 다중공선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10개의 변수 중 5개의 변수가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첫째, 男性賃金水準이 正의 관계가 있는 점이다. 이는 既婚女性 자신의 임금보다 남성임금이 인상되도록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남성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전키 위해 既婚女性노동자를 수요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대적 및 상대적 女性賃金の 上昇은 既婚女性の 時間制 就業을 增加시킬 수 있다.

둘째, 教育水準問題이다.

고졸이상의 교육수준이 正의 상관관계를 가져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도 증가하는 것이다.

셋째, 男性失業率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正의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남성실업률이 높아질수록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편이 무직 또는 실직한 既婚女性들이 時間制就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남편의 직업 유무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한국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住宅供給과의 관계는 자기집 마련을 위해 既婚女性들이 就業하는 한국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子女教育을 위한 教育費 調達을 위해 就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出産率 問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의 저하가 既婚女性의 時間制就業을 증가시키는 부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출산율의 저하가 既婚女性의 가사노동배분에 영향을 미쳐 時間制就業을 增加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V. 結 論

勞動經濟學에서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노동 중에서 既婚女性의 勞動을 再認識하게 된 것은 조용한 혁명이었다.

既婚女性의 생활이 가정내 생활에서 가정의 생활로 물질적 욕구충족에서 심적욕구충족으로 변화되고 經濟變動의 週기가 장파에서 단파로 급변해가고 있다.

先進國에서는 이미 既婚女性의 취업이나 재취업, 그리고 時間制就業에 관한 論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부터 관심이 되고 있는 既婚女性勞動은 200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삶의 형태가 적극적인 참여의 삶, 그리고 적극적인 책임의 삶, 정체된 삶이 아닌 역동적인 삶, 사회연대의 삶이 전개될 것이다.

미래적응력을 갖춘 既婚女性人力은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職種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무너져 고도산업사회,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既婚女性노동의 수요를 증가시켜 직업적 능력이 개발되고 직업의식을 갖춘 여성 진출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지금까지 既婚女性의 就業問題에 가장 큰 阻害要因으로 작용하였던 법적 제도적 차별적 요인들이 조정될 것이고 여성 스스로 차별에 대한 대처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企業側에서도 미래사회 적응전략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남녀차별적 고용관행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특히, 既婚女性은 家事와 就業의 양립이 비교적 용이해져 時間制就業이 확대 정착됨에 따라 전문직 제가근무제, 시간탄력적 근무제(Flex time Job)등의 새로운 취업형태가 발전되어 직업을 평생직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의 既婚女性社會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加要因, 그리고 再就業決定要因들이 研究되었고 既婚女性의 時間制就業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은 既婚女性の 취업이나 재취업 요인과 같이 현대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60年代와 달리 거시적 요인보다 미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셋째, 個人的 要因에서 여성교육수준은 正(+)의 效果를 미치는 요인이고 출산율은 負(-)의 效果를 미치는 요인이다.

넷째, 家庭的 要因으로 남편의 임금수준이 正(+)效果를 미치는 요인이고 남편의 직업의 유무에서 무직인 경우 正(+)의 效果를 미치는 요인이었다.

다섯째, 이를 先進國과 비교할 때 개인적 요인인 교육수준과 출산율의 경우 선진국과 같은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고 家庭的 要因에서 남편의 임금과 직업이 없는 경우는 先進國과 반대의 요인으로 나타나 한국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2000年代를 맞이하여 女性の 能力開發政策으로 직업능력개발과 의식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정책과제인 남녀고용평등법의 확대, 정착, 여성진출 직업영역의 확대, 직업결정기능의 강화, 既婚女性の 경제활동의 증진, 탁아제의 확립 및 다양화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직업훈련의 확대, Flex-time제도의 도입, 제조업의 생산직 인력의 공동화, 時間制就業, 時間制雇傭, 時間制 再雇傭, 職務改編 및 職種開發 등 수요측 요인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既婚女性の 時間制就業은 雇傭의 乘數效果를 일으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1996년경에는 서비스업 勤勞者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未婚女性들의 서비스업으로의 移動과 職種の 구별이 없어지고 정보화시대에는 임시직 및 계약직 채용이 증가되어 既婚女性の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時間制就業은 增加할 것이다. 賃金은 높고 所得이 적은 우리의 所得構造 개선을 위해서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既婚女性人力과 같은 潛在人力을 時間制로 活用하는 것은 의의 있는 戰略이 될 것이다.

따라서 政府나 企業 그리고 家計의 經濟主體들은 既婚女性勞動에 대한 視角變化와 認識의 轉換이 절실하다는 것을 強調한다.

[註]

- 1) 우리나라의 경우 時間制就業에 관한 자료가 없고 不完全雇傭으로 임시고, 일고 등을 時間制就業으로 하였다.
- 2) 既婚女性の 再就業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全南大學校 論文集, 第34輯, 經商篇, 1989. pp.13-42.
- 3) 女性の part-time working은 OECD, Employment outlook 1983, Chapter IV, 1989, Chapter V, pp.149-172, E. Women's involvement in New Forms of of working과 Lpart-time working을 參照.
- 4) 廣田妻子, 現代女子勞動の研究, 勞動教育ソター, 1979, pp.70-185.
- 5) J.J. Heckman, Shodow price, Market wage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Vol.42, No.4, 1974, pp.679-694.
- 6) 桶口美雄, 既婚女子의 勞動供給行動, 三田商學研究, 25卷 4號, 1982, pp.454-485.
- 7) 既婚女性の 再就業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全南大學校 論文集, 第34輯, 經商篇, 全南大學校, 1989.
- 8) Brown - Finegan(1969), Cain - Dooly(1976), Tedashi Yamada(1985), 宣榮圭(1989) 參照.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 김태홍 外, 製造業部門의 性別 比率 變化에 관한 研究, 한국여성개발원, 1991.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各年號.
———, 韓國의 社會指標, 各年號.
———, 都市家計年報, 各年號.
裴茂基, 勞動經濟學, 경문사, 1989.
宣榮圭,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加要因에 관한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6.
———, “既婚女性の 再就業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전남대학교 논문집 제34집, 경상편, 1989.
申榮秀, 女性勞動市場의 中長期展望과 課題, 韓國勞動研究院, 1991.4.
魚秀鳳, 勞動市場變化와 政策課題, 韓國勞動研究院, 1991.6.
李孝秀, 高學歷化 現象과 雇傭, 韓國勞動研究院, 1991.5.
崔錫采, 產業社會와 停年,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4.
崔榮起, 勞動時間의 實態와 政策課題, 韓國勞動研究院, 1991.6.
한국갤럽조사연구소, 韓國主婦의 生活과 意識構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7.
韓國女性開發院, 여성관련 社會統計 및 指標, 한국여성개발원, 1986.
———, 女性の 就業實態調查, 既婚女性을 中心으로, 한국여성 개발원, 1986.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外國文獻)

- 桶口美雄, 既婚女子의 勞動供給行動, 三田商學研究, 25卷 4號, 1982.

- 八代當, 女性労働の經濟分析, 日本經濟新聞社, 東京, 1983.
- 廣田妻子, 現代女子労働の研究, 労働教育, 1979.
- Applebaum, Eilen, *Back to work determinants of women's successful Reentry*,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1981.
- Ashenbelter O. and J.J.Heckman, The estimation of income substitution effect in a model of family labor supply, *Econometrica*, Vol.42, No1, 1974.
- Becker G.S., Human capital, effec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85.
- ,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September 1965,75.
- , “Market prices, opportunity costs and income effects”, in C.Chris et al., eds., *Measurement in Economics: Studies in Mathematical Economics in honor of Yehuda Grunfel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 , and R.J.Barro., “A Reformul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Working paper*, No.85-11, Economics Research Center/NORC, October 1985.
- , and E.M.Lands, and R.T.Michael., “An Economic analysis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December 1977,85.
- , and H.G.Lew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of children, in T.W. Schultz.ed., *Economics of the family*, 1974.
- , and N.Tomes.,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nt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ugust 1976,84.
- ,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Working Paper*, No.84-10, Economics Research Center/NORC, October 1984.
- Ben-Parath Y., Labor force participation wages and the supply of lab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1, 1973.
- , “First Generation effects on second generation fertility” *Demography*, August, 1975.
- Berman Eleanor, *Re-entering successful back to work strategies for women seeking a fresh start*, Crown Publishing Inc, 1980.
- , “The job of housewife”, *The economic emergence of women*, Basic Books, New York, 1986.
- Bowon W.G. and Finegan T.A.,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Cain G.G., The labor-supply response of married women, husband present,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74.
- , Welfare economics of policies toward women, *The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3, 1985.
- , and Dooley M.D., Estimation of a model of labor supply, fertility and wage of married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4, 1976.
- Coroll M.P., Accomodation to purdah the femal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36, May, 1974.
- Dooley M.D., Labor supply and fertility of married women: An analysis with grouped and individual data from the 1970. U.S.Censu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82.

- Durand J.D.,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46.
- Eleaner Berman., "Returning to work are you ready", *Reentering: Successful book to work strategied for women seeking a fresh start*, Crown Publishers Inc, New York, 1980.
- Even W.E., Career interuptions following childbirth,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5, No.2, 1987.
- Fleisher B.M.,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A Review Articl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71.
- Gronau R., The effect of children on the housewife's value of ti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6, No.2, 1973.
- Grumm W.S., Labor, Work, and Leisure, human well-being and the optimal all seating of time,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21, No.1. March, 1987.
- Heckman J.J., A Partial survey of recent research on the labor supply of women, *Americans Economics Review*, Vol.68, May, 1978.
- , Life cycle consumption and labor supply, An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consupcion over the life cycle, *The American Economics Review*, Vol.64, 1974.
- , Shadow price,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Vol.42, No.4, 1974.
- , and T.E.Macurdy., A life cycle model of female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s Studies*, 1980.
- Hill M.A.,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Japan : An aggregate model,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9, No.2, Spring, 1984.
- Lee R.D., "Fluctuations in U.S. fertility, Age structure and income", *Final report to NICHD*, Population Studies Center, Ann Arbor, July 1977.
- Lewis H.G ., "Hours of work and hours of leisure", *In Proceedings of the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Association*, Princeton University, 1957.
- Long J.E and E.B.Jones., Part-time work by married women, *Southern Economics Journal*, Vol. 46, No.3, January 1980.
- Maloney T., "Employment constraints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 A examination of the added worker effect",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22. No.4, Fall, 1987.
- Mincer J., Labor supply family income and consumption, *The American Economics Review*, 1960.
- Modigliani F. and R.Brumberg.,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enneth K.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 New Brunswick : Rutgers University Press, 1954.
- Myral Alha and Viala Klein., *Women's two roles: Home and work knowledge*, Kegan London, 1968.
- OECD., *Employment outlook*, 1983, 1989.
- Orden S.R and N.M.Bradburn., Working wives and married happi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74, 1969.
- Pollak R.A and J.A.Wachter., "The Relvance of the household produc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allocation of ti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il 1975.

- Schultz J.W., *Economics of the family, children, and human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74.
- Shapir D and L.B.Shaw., Growth in the labor force allocation of married women : Accounting for changes in the 1970'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50, No.2, October, 1983.
- Shaw L.B., Problem of labor market reentry, *Unplanned Careers : The working lives of middle aged women*, Lexington Books, 1983.
- , *Midlife women at work a fit teen-year perspective*, Lexington Books, 1986.
- Smith J.P., *Female labor supply and esti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 , Family labor supply area the life cycle, *Experience in economics research*, Vol.4, 1984.
- , On the labor supply effects of age related income maintenance program,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75.
- , and Michael., Word time-series, growth in the female labor for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3, No.1, 1985.
- Sweet J.A., *Women in the labor force*, Seninar Press, 1973.
- , Returning to work after childbirth national fertility survey, 1967-1969. *working paper*, 74-31,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74.
- , "Employment during pregnancy", *CDE Working paper*, 74-11,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October, 1974.
- , "Labor force reentry by mothers of young children, *social science research*, 1, 1972.
- Willis R.J.,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in T.W.Schultz ed., *economics of the family*, 1974.
- , "The direction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demographic transition : The caldwell hypothesis reexamined", in Y.Ben Porath ed., *Income Distribution and the family, A Supplement to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82.
- ,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economic of the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87.
- Winegarden C.R.,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 Evidence from cross-national data, *Economeica*, 1987.
- Yohalem A.W., *Women returning to work : Policies and progress in five countries*, 1980.